

‘예수품안교회’ 창립 이야기 나누기

우리는 2019년 1월 6일 ‘예수품안교회’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품안교회’로 다시 모여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아픔과 갈증으로 ‘가나안’과 ‘떠돌이’ 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오늘의 우리교회가 된 ‘그말씀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느낀 소름 돋는 떨림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예수품안교회’, 왜 세워지는가?』로 시작하는 창립취지문을 대할 때면 가슴이 설레고 벅차옵니다. 창립예배에서 전한 강치원목사의 『‘그때’의 귀향과 ‘오늘’의 귀향』과 1주년 기념 예배의 『전통을 넘어 예수 품 안으로의 ‘귀향’』은 2018년 늦가을에 시작한 ‘탈출’에 ‘귀향’의 의미를 붙여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창립취지문과 함께 ‘예수 품 안으로의 귀향’이란 사명은 우리가 길을 잃은 게 아닌 가란 생각이 들거나, 이런저런 소리로 마음이 아프고 선택이 힘들 때 야곱의 ‘돌기둥’처럼 호흡을 가다듬을 실마리를 찾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나와 새롭게 동지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섭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고 있는 것일까요? 창립 초기 교회 사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채우느라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보고 들어야 할 진정 귀한 것들, 복음 사역을 놓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없었을까요? 리더는 선택을 통해 길과 방향을 열어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었고,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은 지 3년째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은퇴한 장로이면서도 교회창립을 앞서서 섬기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온전히 순종했는가, 지금도 그러한가를 스스로 돌아보곤 합니다. 이제 5년 차인 지금 그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되짚어 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을 찾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왜 ‘예수품안교회’를 세우는가? - 운동장 설계하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이 초

대교회였습니다. ‘예수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모임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의존적 협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직분과 절차 그리고 관계를 담고 있는 조직과 제도로서의 교회, 이름하여 가시적 교회입니다. 세속에 물든 덴마크 국교회와 싸운 키르케고르(S. A. Kierkegaard)가 설파한 것처럼 가능한 한 값싼 가격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세속적 성향’이 종교 전문가들을 또 다른 중보자로 세웁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예배의 수동적 관람객과 소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인 종교 행위가 복음을 우선하여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구별된 삶 대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고, 제서니(S. Jethani)가 진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팝니다?(The Divine Commodity)』라고 하는 망극한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삶으로 써가려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협=우상’이 되는 결과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면서 말씀 위에,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하시지만, 언젠가부터 교회라는 특성으로, 그리고 믿음과 은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치열함을 생략하고 ‘타협’이란 유혹에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이 틈을 독선과 독주가 비집고 들어오고, 사실과 합리에 눈 감는 비이성이 누룩처럼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이는 빛과 소금의 기능을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장을 잃게 합니다.

우리교회는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전통을 넘어 예수 품 안으로의 ‘귀향’』이라는 개혁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말씀을 삶으로 써 가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인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제자로 살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목회자, 이름하여 성직자가 교회의 주인과 핵심이 되는 ‘사제적 권위주의’를 넘어 ‘만인 제사장’으로 교회에서 ‘실업자’가 없는 참되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님(골 1:18)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로 세워가는 삶(롬 12:5)을 선언한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를 신앙생활의 길라잡이로 삼고, 본향으로의 귀향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2.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 운동장 만들기

본래 제도란 혼자서는 잘하지 못하는 인간이 불규칙하고 모호한 여정을 걸어가며 겪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에 필요한 형식이나 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교회는 사람만 바꾸는 개혁이 실패하는 지름길인 것을 알기에 사람이 누리는 특권의 원천인 ‘제도’, 이름하여 ‘사제적 권위주의’ 바탕이 되는 것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독립교단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선택**, 장로의 대의 정치원리를 택하여 치리회를 구성하되 행정권은 교역자와 장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참여하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제도**와 이를 견제하는 **사역위원회 제도**, 그리고 담임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 제도** 등입니다.

이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섬기려는 성도들의 다짐이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제자로서의 고백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전통적 교회 제도하에서 누릴 수 있던 특권을 내려놓는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믿음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 길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가거나 새길을 내며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좁은 길’의 순례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사도신경, 전통적 신앙고백서와 장로교 예전을 따르면서도, 초교파적 특성을 갖는 독립교단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되 본질을 벗어난 전통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지만, 자유가 방종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멍에’를 져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질서와 권위를 넘보는 현상들도 우려되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서로 ‘다름’으로 논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동역자가 되어 서로 존중하며 걸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 경기 방식 설계하기

인간 정신은 일상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재료 삼아 부지불식간에 지식을 형성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는 것은 물론 알게 모르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며, 자신만의 신학을 형성합니다. 이런 암묵적 신학은 각 개인의 신념 체계와 결합하여 우리를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배타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부적절한 신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며,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우리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취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냉소의 대상이 되는 한국교회 문화에 주목하고, 이를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처럼 몇몇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라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부인함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문화를 걷어내려 했습니다. 이런 교회 문화를 벗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것들이 **예품교인윤리 강령, 교회 정관, 교회회계규정**, 그리고 **교역자청빙규정** 등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우리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의 정치와 권징을 담고 있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더 세밀한 규정과 지침들이 필요했고, 이들을 갖추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과 지침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마음을 절제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역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맡겨주신 시간, 사람,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정해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자리매김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교회와 성도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교회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교회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웃들에게 “와 보라”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 경기에 뿔 선수는 누구인가? - 대표선수 찾기

우리교회는 손님 같은 소비자로 아니면 평가자로 머물며, 한편으로는 교회의 부조를 뒷담화하며 무기력하게 묻어가는 성도들에 주목하고, 우리가 경험한 교회를 섬기는 방법 중 빈틈과 잘못을 분별하고 개혁하려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만인제사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생산자로 자리를 잡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임전결지침**과 **예품사역편람**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자상하게 성막을 짓고 광야생활을 일러주셨음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일곱 집사와 열두 사도를 세우며 역할을 분담시키시던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교회공동체는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품안교회를 섬기는 짐을 나누어지고, 교회 사역에 문외한인 성도들이 사역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설피기도 하겠지만, 서로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섬길 때 찾아오는 뿌듯함과 흐뭇함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열매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러리'가 아

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과 책임감 있는 ‘섬김이’가 될 것이고, 하찮아 보이는 섬김들이 모여 교회의 기본이 바로 서고, 신뢰를 다시 쌓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형제자매들과 크고 작은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며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훈련을 통해 “참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이기는 방법 찾기

우리교회는 우리가 선택하고 창립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과 교회를 섬기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세상에 내놓으려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른 봄부터 깨어 광합성으로 과실을 맺은 뒤, 겨울잠을 자며 더 튼실한 새봄을 맞습니다. 우리교회는 **직분과 사역의 임기제**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해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작은 가지의 사역에도 충성스럽게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먼저 난 가지들이 새로운 가지가 자기 위에서 힘차게 뻗어가도록 아래에 남아 버티고 동화작용을 돕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는 섬김을 통해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운용원칙은 최소한의 사회통념을 따르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 정관에 명시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재정 지출과 운용에 관한 결재 과정을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과 밖의 재정 사용 비중을 정한 균형재정의 원칙은 올해 교인총회를 통해 그 비율을 현실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려는 우리교회의 선언입니다.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날개를 가진 교회’로 창조하셨는데(행 2:46~47),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특별한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교회로 변화되고, 교회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설계한 교회의 본질과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가정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름 지은 가정교회는 성도가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날마다 새로 발견하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는 삶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목원 모두가 참 제자가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창구, 나아가 우리 모두의 변화를 이끌 그릇이 곧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 모여 밥을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을 나눔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소그룹의 나눔이 이뤄지도록 유연하게 그

방법과 길을 찾아내어, 예품가족임을 맛보고 누리는 목장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예수품안교회를 창립하기 위해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듬고, 공개적으로 설명도하고 제안도 하면서 우리교회의 길을 함께 찾아가려 했지만, 허물과 부족한 게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과 미흡함을 보듬으며 동역하고 동행해주신 교우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교회의 뼈대를 세우려는 마음이 크고 급해 사랑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와 정의를 굽게 하거나 지나치게 기울어지게 하는 타협은 없었는지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마련한 제도일지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아 마련할 수 없고, 더욱이 죄 된 속성을 가진 사람이 그 제도를 맡아 운영하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주신 세상을 이길 성령의 검을 사용하되, 필요한 것은 새로 짓고 고쳐가며, 단단하고 끈끈한 사랑의 팀워크와 각기 맡은 역할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대표선수들로 부름을 받은 예품가족들이 ‘하바콰이어중창단’의 각기 다른 음색들이 모여 심령을 울리는 화음을 이루어내듯,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품안교회가 『시편 119,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꿈꾸며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